

## 격변시대—— 우리 방위산업의 새 進路



白永勳 /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KID 원장, 경제학박사



우루과이라운드(UR)로 선박이나 자동차, 전자 등 개별부문에 대한 지원이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선진 외국은 이러한 힘을 防産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위산업은 국제경쟁력의 차원을 초월하여 국가적으로 보호, 육성되어야 하며, 산업육성전략의 일환으로 재편성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방위산업이 「時代의 고아(孤兒)」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등 국제정세는 앞으로 1, 2년을 놓고 엄청난 격변의 시대에 부딪쳐 있습니다. 금년(91년)의 국제수지 적자가 1백억불을 넘어서고, 내년(92년)의 국제수지는 1백50억불을 상회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92년)에 선거를 4번 치르는 동안에 약30만명의 노동력이 산업현장을 이탈할 것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인력부족 현상을 일으킬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현재 심각한 문제가 우리 주변에 닳고 있습니다. 중국·북한을 포함해서 새로운 패권주의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하여 자본 자유화의 물결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으며, EC통합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전쟁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은 Post War시스템, 즉 미국 패권주의가 지배해 오던 세계사적 상황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자주국방에 대한 개념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안보문제를 다룰때 이제 독자성이 있는 한국적 자주국방이라는 균형 속에서 자주국방의 현재 자산을 재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국방경제력을 재편성해 독자성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새로운 패권주의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적은 반드시 북한만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의 국방예산은 GNP의 1.2%입니다. 이 중 일본의 병력은 19만명 뿐이 안되어 소모품 비용을 포함하여 전체 국방예산의 25%만 사용합니다. 나머지 약 3백억불 이라는 돈은 민간기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NEC(일본전기)라든가 히파찌등에 연구개발비로 가고 있습니다. 1년에 NEC만 하더라도 6억불을 정부가 지원하며, 신병기·신시스템·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그러한 국방비를 자위대만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산성에서도 연구개발비로 많은 국방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對일본 국제수지 적자가 금년에 70억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본과 경쟁을 할 때 우리의 국제수지 역조는 영원히 풀수 없는 과제로 남게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의 자주국방을 재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번째 과제입니다.

두번째는 **우리의 경제력, 국방력과 방위산업의 연계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 예로 ADD의 예산은 국방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ADD는 기술개발입니다. 과학기술처와는 무관한 관계로 갔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를 안했는데, 국방력과 방위산업과 경제력과의 연계효과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두번째 과제입니다.

국제적으로 방위산업은 경쟁력을 초월한 완전히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산업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지원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10년간 계속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산업적 전략으로서 방위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새 進路

새로운 전환시대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국방경제력의 재편성을 위해서는 거시적 안목에 입각한 정책적 변화가 수반 되어야 하며 방위산업이 국제경제의 재편성이라는 차원에서 지니고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고도산업국가로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첨단기술시대에 대비한 산업전략기반으로서 방위산업의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방산육성정책은 국방과학기술과 상공정책 및 민수과학기술이 연계되어 수립 되어야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견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중·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하여 고도 정밀병기의 연구개발체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네번째**로 국방경제의 재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국방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가용재원의 최대한 활용과 더불어 단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국방력의 국제화 시대로의 적극적인 개척을 기하고, 투자자본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기업의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보다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할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우리방산체제의 고도화로 세계시장의 방산전략화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국제화·정보화 속에서 교역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對美 관계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탈피하여 세계시장을 향한 마케팅활동을 적극 추진할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세계시장에 공동 진출해 상호이익과 경제적 평등을 획득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로는 국제협력의 다변화로 군사기술 및 방산협력은 상호 공동이익추구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진보는 과거와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빠르며, 독자적으로 생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볼때 국제협력의 확대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일곱번째**로는 산·학·연 협력체제 정책이 꾸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쌓아올린 방위산업 생산기반을 기초로 우리실정에 부합된 새로운 방위산업의 생산구조를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끝으로 기업혁신화를 추진하여 기업은 기업 스스로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자력과 자립의 새로운 변신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정부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